



당뇨와 함께 한 40년... 그리고 2005년 (2)

최삼연(남, 76세, 당뇨인)

의료진들에게 바람

당뇨인으로서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며 살아 온 만큼 의료계와 국가의 의료 관련 제도와 방침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남 다르게 많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몇 가지 당부의 말만 하려고 한다. 먼저, 일선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료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당뇨병환자의 약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한다. 의료관계자의 대다수가 이들 고령의 당뇨병환자에 대해서는 인생의 후배인 셈이다. 의료에 관한 한 의료인들은 환자보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많은 면에서는 환자가 인생의 선배라 할 수 있다.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환자가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도 그 뜻을 감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 관계 형성의 튼튼한 기초가 되리라 믿는다. 어떠한 병이든 치료란 이런 신뢰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에 바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평균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 고령자의 질병 또한 증가해 장차 국가 재정에 미치는 의료 재원은 각종 연기금과 더불어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예방 차원의 당뇨병 역학 및 발생 예방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민영 건강보험제도가 골간을 이루면서도 고령자 및 빈곤자에 대해서는 넉넉한 공적보조가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다. 또, 우리가 전액을 국민일반에게 부담하는 제도와는 달리 일차 예방 단계에서부터 증례(症例) 관리자가 생활습관을 지도하고 준수시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

를 올리거나 파기하는 등, 마치 우리의 자동차 보험의 부담금 증액 또는 감면 제도와 같이 예방을 위한 자조 노력을 우대해 준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부 의존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국가 의료 재원의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당뇨병의 특성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질병으로, 환자의 과반수는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당뇨병이란 합병증을 미연에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종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령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정부는 고가 장비에 의한 검사에 한해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채택해 주기 바란다.

셋째, 고령인 생활습관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감면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선진각국이나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혜택은 결코 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에는 재정의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겠으나 국가경영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 복지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정자의 의지는 때때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성과에 치중하는 나머지 투자가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짙으며, 단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후생 복지면이나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 되기 마련인 듯 하다. 그러나 그 정권의 평가는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드러나는 것이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권은 어느 한 짧은 기간의 국정을 국민으

로부터 위임 받고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에 서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재정의 비중이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런 뜻에서도, 의료복지 분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정부의 투자를 간곡히 바라 마지 않는다.

넷째, 국가의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혹은 대행하는 각급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원활한 운영과 활동이 성과를 견을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이야말로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면서 홍보와 예방의 일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당뇨인들에 대한 바람

끝으로 당뇨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선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자신의 병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지식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면서 스스로 자기 병을 관리하는 현명한 환자, 그래서 건강한 생활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 판단될 때는 끊임없이, 또 과감하게 제도 수정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뇨 인생 40년에 이렇다 할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76세의 필자가 하는 말이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뇨인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아울러 4백만 당뇨인을 위한 지도와 후원에 아낌없는 정부 및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련 단체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